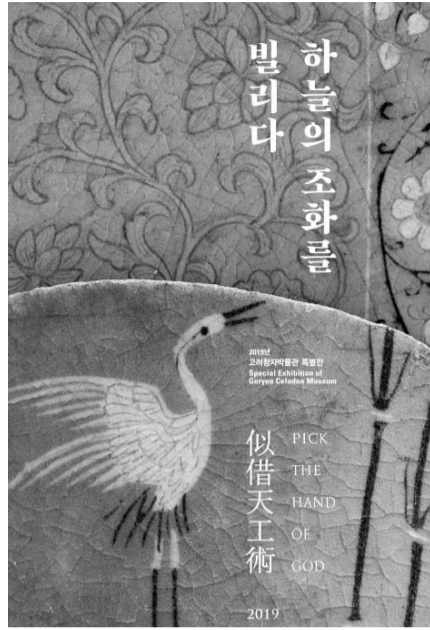


# 출토 100년 만에 강진서 만나는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19일부터 '강진 청자요지 발굴유물 특별전' 1914년 첫 발굴조사 출토 유물 순종이 신문기자 초청 공개 이후 두차례 공식적인 추가 조사...관련 사진·도면 등 정리

1914년 강진 청자요지 첫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자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강진에서 열린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포스터>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00여 년 전인 1914년 6월 매일신보(每日申報)에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며 발굴 장면과 출토된 청자 사진이 실렸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이 그해 4월 발굴조사의 출토 유물을 창덕궁 주합루에 진열하고 신문기자들을 초청해 공개하며 언론에 알려졌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수년 전부터 강진 청자요지 발굴조사와 관련한 오래된 자료를 수집해왔다. 1914년에 처음 발굴조사가 이뤄진 뒤 1928년과 1938년에 두 차례 더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발굴조사 관련 사진과 도면 등을 정리,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청자유물과 함께 공개한다. 특별전에서는 1910~1930년대에 조사된 청자와 함께 최근 고려청자박물관 서남쪽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성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도 12점이 포함됐다.



또 새롭게 확인되거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양의 청자도 선보인다. 안쪽에 공간 분할이 되어 있는 필통, 팔

각형의 접시에 문양을 찍어내는 도범(陶范), 처음 보는 장신구와 옷을 입은 아이 등 강진 청자요지가 고려청자의 보고임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청자들이 강진에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청자 유물들도 전시된다. 복숭아를 들고 있는 인물 모양의 주자(국보 제167호), 물오리가 노니는 연못 풍경을 조각한 정병(보물 제344호), 울창한 대숲을 연상시키는 죽절문병(국보 제169호) 등이 강진 청자요지에서 제작됐다.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은 "고려청자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2017년 10월)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사된 청자를 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행 중인 박물관 주변 사적지 발굴조사로 새롭게 출토되는 유물들도 신속하게 소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기자 노트

### 단체장 인사권 남용 막을 방안은 없는가?

장흥군 공직사회가 인사 단행 10여일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으로 내홍이 빠졌다. 인사를 놓고 지자체에서 잡음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장흥군의 인사는 란은 일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심각성이 더한 것 같다.



김용기 전남중부취재본부장

지난 1일자로 발령한 Y면장 A씨(5급)와 J읍 6급 B씨를 정보유출과 품위손상(인사불만 1인사위) 이유로 같은 날자로 대기발령한데 이어 12일자로 또다시 이들을 사업소장과 군 산하 연구원 팀장요원으로 재발령하는 '춘극인사'가 빚어져 공직사회가 여러등 절한 분위기다. 정중순 장흥군수가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제한(1년)을 무시한 인사와 연공서열 파괴, 선거측근 특혜인사 등으로 인사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50여명을 전보제한(1년)을 무시하고 한 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주는 4번을 옮기는 일명 '핑돌이'식 파행인사를 단행, 공직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본청 6급 팀장급 4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읍·면으로 좌천성인사를 하고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연공서열과 근무

평점을 무시해 결국 조직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번 장흥군 인사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위원장·부군수 이하 민간인)로 구성)가 부여된 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해당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독단 행한 것인지 짚어볼 일이다. 통상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 권한인 만큼 대가성 특혜인사가 불거지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흔히들 '오야 말'으로 부르는 단체장의 무소불위 영향력을 공직사회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합당한 인사라 하면 스포츠에서 '물'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듯 역시 '인사규정'에 따라 조직정서와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지자체 곳곳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횡포와 남용이 도마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치형 선거관' 공무원 양산되지 않을까. 지방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인사기 만사'라는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장흥=kykim@kwangju.co.kr

###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초등생 2차 '역사탐방' 완도 청해진 등서 진행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6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문화탐방은 해남 공룡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에 서식한 공룡 흔적을 둘러보고,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1차 프로그램에서는 장천리 선사주거지, 도갑사, 마한문화공원 등 군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아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고창 전봉준 생가터와 고창읍성, 고인돌 유적지를 탐방하고 광주의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탐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영암군청 소년수련관(061-470-1000)으로 확인하면 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목공예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맞아 학생·가족 대상 동물모형 만들기 등 인기 있다. 영암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 및 가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지난 2015년 9월 개장한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문화 저변확대와 목재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공간 운영,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쿠미기(동물모형, 인물모형 만들기 등), 우드버닝(나무에 캐릭터, 풍경화, 인물화 그리기 등), 반제품(연필통, 독서대, 책꽂이, 저금통 등), DIY 가구만들기(의자, 트레이, 편백가구 등) 등을 연중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재료비 50% 할인 가격에 가족예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예약 방법은 홈페이지(www.gitree.org) 및 전화(061-470-6875)로 사전예약 후 체험을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목재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은 적극 홍보하면서 여름철 관광객들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 중 청소년의 목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려 한다"며 "목재체험장이 여가생활 공간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족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전남신보재단-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 업무협약 소상공인 원스톱 신용보증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원스톱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용상담창구' <사진>가 설치되고 장흥지역 소상공인 등은 전용창구를 통해 전남신보 방문없이 원스톱 보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의는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061-862-7811),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061-535-9336)으로 하면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